

# 독거노인을 위한 디지털 알리미 서비스

한정원\*

부산가톨릭대학교

## Digital Information Service for Lone Elderly

Jeong-won Han\*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E-mail : jhan@cup.ac.kr

### 요 약

초고령화사회에 접어들면서 독거노인의 수도 증가하고 있고 따라서 고독사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독거노인을 위한 알리미 서비스를 살펴보고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기존 유선으로만 이루어지는 응급 상황 여부에 대해서 센서 감지, AI 감성 로봇 활용 등으로 디지털 정보 수집 및 상황 파악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분기별 1회 이루어졌던 직접 방문 시에는 장비 점검 및 디지털 상황을 검토해야하고 유선으로 이루어졌던 월 2회 간접 방문을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 확대 하도록 한다. 셋째, 독거노인, 장애인 등의 안전 확인 곤란 또는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디지털 응급안전망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마지막으로 이러한 디지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이용자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신규이용자에게 장비사용 교육을 하는 것은 물론, 정기적으로 재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 ABSTRACT

Lone Death is increasing as elderly population increases. Lone elderly is vulnerable in society for many reasons. This paper explores digital solution to protect solitary in society. First, sensor and AI care robot can be used to collect digital data and situation check. Second, digital device is checked regularly and visiting is expanded in digital environment. Third, digital emergency security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Fourth, user education is to be regularly carried out including complementary education.

### 키워드

Lone Elderly, Solitary, Lone Death, Digital Solution for Lone Death

### 1. 서 론

우리사회는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었고 가파른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독거 노인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20년 8월 기준 독거노인 수는 158만 9371명으로 2016년 127만5316명과 비교할 때 4년 사이 약 2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 연도별로는 2016년 127만5316명, 2017년 134만6677명, 2018년

143만748명, 2019년 150만413명, 2020년 8월 기준 158만9371명으로 매년 약 5~6% 증가하고 있다[2]. 독거 노인은 사회적 지지망도 약하고 대부분의 일상 생활에서 혼자 생활하기 때문에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개인적·사회적 현상이 독거노인의 자살, 혹은 고독사로 이어지고 있다. 고독사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며 사회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사회문제이다.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예방책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독거노인을 위한 알리미 서비스를 살펴보고자 한다.

\* speaker

## II. 고독사

보건복지부의 무연고 사망자 통계는 보건복지부의 정확한 기준이 없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분류된 무연고 사망자 통계를 취합하는 방식으로 무연고 사망자의 수가 정확하지 않다. 아래 <표1>에 의하면 2013년부터 2018(상반기)년까지 무연고 사망자 현황에 의하면 3,773명의 독거노인이 고독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고독사는 연도별로는 2016년 1820명, 2017년 2008명, 2018년 2447명, 2019년 2536명, 2020년 6월 기준 923명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2016년부터 2020년 6월까지의 고독사 중 약 43%가 65세 이상 노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6년 735명(40.4%), 2017년 835명(41.6%), 2018년 1067명(43.6%), 2019년 1145명(45.1%), 2020년 6월 기준 388명(42%)이었다[3].

전체 무연고 사망자 중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의 비율도 21.2%로 높게 나타나 장애인들의 무연고 사망 비율 또한 높게 나타났다[4]. 장애인은 대부분이 일상생활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여 취업, 교육 등의 생활을 하는 것이 어렵다. 경제적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경제적 빈곤 현상과 장애를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한 차별 등으로 사회활동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고독감과 생사고, 일상생활 불편 등에 따른 장애인의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안전망 구축이 또한 필요하다.

<표 1> 전체 무연고사망자대비 65세 이상 무연고사망자현황(2013년~2018년 상반기)

구분	연도별						
	합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상반기)
전체무연고 사망자	9,446	1,271	1,379	1,676	1,823	2,010	1,290
65세이상 무연고 사망자	3,773	458	532	666	735	835	547

## III. 사회안전망

사회안전망은 노령과 실업, 재해, 질병 등 현대 산업 사회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일반적으로 빈곤층에 대해 지원하는 공공부조제도를 말하며, 우리나라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대표적인 예이다.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s)은 광의로 볼 때 모든 국민을 실업, 빈곤, 재해, 노령, 질병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등 기존 사회보장제도에 공공근로사업, 취업 훈련 등을 포괄한다. 이러한 사회안전망의 목적은 모든 사회적 위험에 대한 '포괄성'과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적용되는 '보편성'을 실현하고 '국민복지기본선(National Welfare Minimum)'을 보장하는 데에 있다.

사회안전망 구축은 크게 3가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사회적 고립 가구와 관리시스템 구축이다. 독거노인 고독사는 기초수급관리대상자에게서 보다는 차상위 계층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는 관리대상에서 제외되면 외부와의 접촉이 멀어져서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고,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어 고독사로 이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우선 관리되지 않는 사회적 고립 가구를 발굴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조치이다. 사회적 고립 가구의 전수조사와 각종 홍보 매체 등을 통해 고독사의 위험에 처한 대상자가 접촉할 수 있는 시설 등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필요하다. 둘째, 발굴된 위험군은 고·중·저 단계별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맞춤형 서비스 지원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고위험군에게는 1인

가구 생활 보장과 긴급지원 등 생계안정 중심의 서비스를, 중위험군에게는 문화·체형 등 집단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사회관계형성을 위한 서비스를, 저위험군을 위해서는 커뮤니티 활동 지원 등 지역 소공동체 활성화를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셋째, 지역자원을 활용한 고독사 예방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지역주민 중심의 사회적 고립 가구에 대해 보살핌과 고독사 위험가구와 지역기업과 연계한 1촌 맺기 사업 등을 지원해 나가는 방안이 필요하다[5].

## IV. 디지털 알리미 서비스

지역사회 독거노인을 위한 디지털 알리미 서비스를 모색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언한다. 첫째, 기존 유선으로만 이루어지는 응급 상황 여부에 대해서 센서 감지, AI 감성 로봇 활용 등으로 디지털 정보 수집 및 상황 파악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분기별 1회 이루어졌던 직접 방문 시에는 장비 점검 및 디지털 상황을 검토해야하고 유선으로 이루어졌던 월 2회 간접 방문을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 확대하도록 한다. 셋째, 독거노인, 장애인 등의 안전 확인 곤란 또는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디지털 응급안전망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마지막으로 이러한 디지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이용자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신규이용자에게 장비사용 교육을 하는 것은 물론,

정기적으로 재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 References

- [1] M. H. Park.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social safety net for solving the solitary problem of the elderly living alone. MA thesis. Baeksuk University. 2017.
- [2] J. K. Cho. A Study on Social Safety Net Policy Improvement Plans to Prevent Lonely Death of the Elderly : focused on Busan Metropolitan City. MA thesis. Busan National University. 2020.
- [3]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884694#home>
- [4] S. H. Kim. “2018 Lone Death of People with Disability”.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8.
- [5] H. Park et al. “The Concept and Countermeasures of Solitary” Korean Convergence Journal. Vol. 11. No. 6. pp. 61-70. 2022.